



2021년 / 9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2021년 4차 운영위원회 (8월 27일)

지난 8월 27일(금), 연구원 사무국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021년 4차 대면 운영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2021년 회원의 날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아쉽지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대신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 회원들과 나눌 기념물을 선정했습니다. 가을장마와 여전히 기세를 잃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시기에 더욱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안내

우리 연구원과 협약기관인 전주대학교 고전학연구소 에서 진행하는 온다라 인문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실시간 강좌로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가가는 인문학, 함께하는 인문학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온라인 실시간 강의

전북 도민 누구나!

온다라 인문 아카데미

PART 01 수강방법

- ① 유튜브에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검색 후 접속 가능
- ② QR 코드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



PART 02 참여혜택

- ① 수강료 전액 무료
- ② 매 회차 추첨을 통해 상품 증정
- ③ 7강 이상 수강 시 선물 증정

※ 이번 강좌는 실시간 강좌로 진행되므로 강좌 관련 수강생 모집은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SNS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전주대학교 #온다라지역인문학센터 #온다라인문아카데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해당 강좌 포스터를 게시한 후, 인증샷을 센터 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립니다.

※ 강사 및 강의 주제, 강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차	일자	시간	강좌명 / 강사
1	8. 4.(수)	16시 - 18시	순국 그리고 비극적 죽음 / 이경배(전주대 HK연구교수)
2	8. 5.(목)		'의리(義理)'는 어떻게 '오리!'가 되어갔을까? -개항기 편 / 문경득(전주대 HK연구교수)
3	8. 11.(수)		서구 근대 심리학의 수용과 전파 / 이대승(전주대 HK연구교수)
4	8. 12.(목)		유교문화 전통과 한말의 자결 순국 / 서정화(전주대 HK교수)
5	8. 17.(화)		일본의 조선 침략과 이데올로기적 시나리오 / 김동희(전주대 HK연구교수)
6	8. 18.(수)		얼 사상과 나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 전종윤(전주대 HK교수)
7	8. 25.(수)		맹자(孟子)의 인민과 국가 / 오항녕(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8	9. 1.(수)	17시-19시	재일 제주인의 공동체와 문화 / 김창민(전주대 교양학부 교수)
9	-	-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랜선체험 I, II



랜선체험이란?

신청을 통해 선착순 30명 선발 후, 체험키트를 택배로 보내드리고 사진을 통해 진행되는 체험방식

[체험1]
문학체험 '작가 취재수첩,
길광편우(吉光片羽)'



[체험2]
'매듭인형, 알콩이와 콩심이'

※ 체험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학플러스(HK+)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침로303 천리관 212A호 | TEL 063) 220-3201-3, 3207
H.P www.jj.ac.kr/hk/ | E-MAIL jjondara@naver.com

주관

온다라 지역인문학센터



포천시립도서관 전주 최명희도서관

후원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전주대학교

스톤헨지 Stonehenge 이야기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 전임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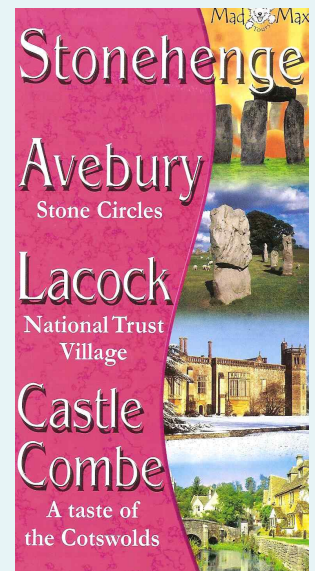
〈솔즈베리 근교에 있는 스톤헨지 거석유적, 필자 촬영〉

지난 호에 로마시대부터 목욕탕으로 유명해진 바스(Bath)를 소개하였다. 우리는 보통 Bath를 배스라고 발음하는데, 이는 미국식 발음이다. 영국에서는 A를 무조건 '아'로 발음한다. 영국에 처음 가서는 라인이라는 Rain을 레인이라는 미국식 발음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Rain 인지 Line인지 혼동할 때가 있다. 또한 O는 무조건 '오'로 발음한다. 그래서 Doctor 닥터는 독토로 Monday는 '몬다이'로 발음 한다.

배스 시내에도 숙소는 많이 있지만 나는 시내에서 도보로 25분 거리에 있는 Bathwick Hill 유스호스텔을 숙소로 정했다. 언덕 위에 있는 거기까지 가려면 경사진 길을 걸어야하는 수고는 있지만, 우선 값이 저렴하고 버스 시내가 한눈에 보여서 좋고, 유스호스텔에서 보이는 푸른 초원과 건너편의 집들이 매우 평화롭기 때문에 두 번이나 이곳에 묵었다.



유스호스텔에서 바라본 경치, 앞의 꽃밭 같은 초원은 자연보호 단체에서 매입하여 보존하고 있다.



바스의 투어 티켓

유스호스텔에서 스톤헨지 투어 신청을 하였더니, 다음날 아침 셔틀버스가 태우러 왔다. 버스 시내를 벗어나면 전형적인 영국농촌 풍경의 펼쳐지는데, 야트막한 구릉과 숲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끝없는 초원이다. 얼마를 달리니 평원 멀리 검은 기둥 같은 물체가 솟아 있는 듯 보인다. 그것은 뜬금없는 돌출적인 풍경으로 의아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스톤헨지이다.

영국에는 선사시대 유적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스톤헨지를 들 수 있다.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거석유적은 지금으로부터 5,000여 년 전에 세워졌다. 지름이 100m 되는 원에 수직으로 거석이 원형을 이루고 서 있다. 멀리서 볼 때는 평원에 무슨 돌비석 같은 게 있나 싶었는데, 점점 가까이 가보게 되니 규모나 형태가 예사롭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돌의 높이가 큰 것은 7m이고 무게는 45톤이나 되는 큰 돌이 황량한 벌판에 우뚝 서 있으니 신기로 올 수 밖에 없다.



줌인(zoom in)해 촬영한 스톤헨지

더군다나 그 주위를 아무리 돌아보고 인근의 지형을 살펴보아도 끝이 안 보이는 평원에서 도저히 것처럼 큰 바위가 나올 만 한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후일 역사학자들에 의해 이 돌들은 240km 떨어진 남부 웨일즈 밀퍼드헤이븐에서 가져 온 것이 밝혀졌지만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운반 했는지 놀랍기만 하다.

아직도 스톤헨지를 왜 세웠고 용도는 무엇이었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학자는 그것이 천문학과 관련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종교적 제사를 위한 것이라고 또 어떤 학자는 무덤이었다고 추측하고들 있지만 아직도 스톤헨지의 정확한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무튼 수수께끼의 그 앞에서면 신비감이 더해진다.

아무튼 비밀에 쌓여 있기는 하지만 선사시대의 현장에서 과거로의 상상 여행만은 흥미롭고 오랜 유적들이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그들은 '참 잘하는 일이다' 는 생각이 든다.



스톤헨지를 돌며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보았다.



지난 호 부터 선사시대 유적을 다루고 있는데, 내친김에 몇 차례 선사시대유적과 영국의 전통 마을을 이어서 게재하고자 한다.